근대문화공간 수원 구 부국원 개관식

- **일　　시** | 2018.11.29.(목) 14:00~15:00
- **장　　소** | 수원 구 부국원 (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30)

※ 본 전시관에는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광역버스 3000

시내버스 2-1, 9, 10, 13-4, 35, 37, 83-1, 720-2 등
(가족여성회관, 이춘택병원 하차)

근 대 문 화 공 간
수 원 구 부 국 원

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0 (교동)
☎ 031-228-2478, 3885 (수원시 문화예술과)

수 원 시
SUWON CITY

근대문화공간
수원 구 부국원 개관

2018.11.29.(목) 14:00~15:00
수원 구 부국원 (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30)



등록문화재
제698호

건축물 연혁

- **1923년** 주식회사 부국원 본사 현 위치에 신축
- **1952~1956년** 수원법원 및 검찰청사
- **1950년대 말~1963년** 수원교육청
- **1960~1970년대**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
- **1980~1990년대** 박내과 의원
- **2000년대** 한솔문화사(인쇄소)
- **2006년** 수원시 향토유적 제19호 지정
- **2015년** 개발로 철거위기, 수원시 매입
- **2017.10.23.** 등록문화재 제698호 지정
- **2016~2018년** 복원계획 수립, 원형확인 조사, 복원 공사
- **2018.11.29.** 근대문화공간 수원 구 부국원 개관

초대합니다.

항상 익숙하게 지나치던 거리는

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.

90년 넘게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삼각형 지붕의 조그마한 건물, 부국원.

일제강점기 종묘회사로 출발하여 해방 후 법원으로,

박내과 병원으로, 인쇄소로

그렇게 교동의 터줏대감으로 우리 곁에 늘 있는 줄 알았습니다.

지금으로부터 4년 전,

개발로 인해 부국원이 헐릴 위기에 처해졌고,

수원시와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.

그 후 3년간의 복원 시간을 거쳐

드디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

뜻깊은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.

2018년 11월

수원시장